



집콕 책콕 행복한 도서관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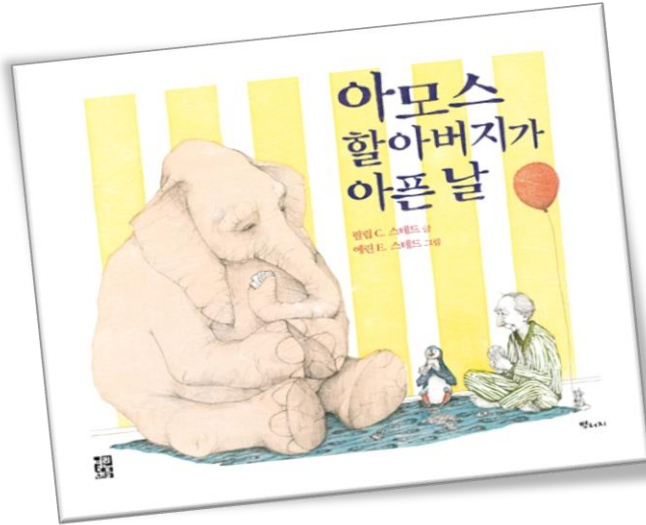
북 큐 레 이 셴

「희 망 : 일 상 으 로 의 초 대 」



해운대
인문학도서관
HAEUNDAE HUMANITIES LIBRARY

유아를 위한 “희망:일상으로의 초대”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	필립 C.스테드	열린책들	아동 843-296

아모스 할아버지는 성실하고 친절한 동물원지기입니다. 동물원에서 할 일이 아주 많지만, 날마다 동물 친구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아모스 할아버지는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오고 몸이 오슬오슬 추웠습니다. 그날은 몸이 아파 동물원에 갈 수가 없었지만, 뜻밖에도 동물원 친구들이 5번 버스를 타고 아모스 할아버지 병문안을 옵니다. 아픈 날 나와 일상을 함께 하던 친구들이 찾아와 준다면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알사탕	백희나	책읽는곰	유아 813.8-1032

구슬치기를 좋아하는 동동이는 오늘도 혼자 놀입니다. 새 구슬이 필요해서 문방구에서 구슬 대신 색깔도 크기도 가지가지인 알사탕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알사탕을 하나 먹을 때 마다 동동이 몰랐던 마음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늙은 개 구슬이의 고단함과 그리운 할머니의 안부, 그리고 잔소리쟁이 아빠의 속마음, 그리고 친구. 저 멀리서 들려오는 친구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동동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나랑 같이 놀래?".

지금은 친구를 만날 수 없지만, 다시 만나서 함께 공원을 뛰어다닐 일상을 그려봅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바다로 간 고래	트로이 하월	북뱅크	유아 843-1300

웬즈데이는 커다란 유리 어항에 사는 고래입니다. 도시의 광장에 갇혀 있는 웬즈데이는 언뜻언뜻 어항 너머로 보이는 푸른 것이 뭘까 궁금해하죠. 그 '파랑'이 보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물을 박차고 뛰어오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다가와 말합니다. "너의 집은 여기가 아니야. 진짜 너의 집은 바다야." 이곳이 내 집이 아니라고? 바다... 바다가 뭐지? 뛰어오를 때마다 보이는 그 푸른 무언가를 잊을 수 없었던 웬즈데이는 마침내 온 힘을 다해 어항 위로 훌쩍, 아주 높이 뛰어오릅니다.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바다에 대한 희망과 그리움은 웬즈데이에게 어항을 뛰어오를 용기였습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고슴도치 X	노인경	문학동네	유아 813.8-1032

더 이상 날카로운 가시가 필요 없는 완벽한 고슴도치의 도시 '울'의 시민들은 '교양 있는 고슴도치 수칙'에 따라 매일 아침 가시를 부드럽게 정돈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 엑스는 가시 손질 후에도 빠죽 서 있는 몇몇 가시들에 개의치 않습니다. 가시를 정돈하지 못해 도서관 벌 청소를 하던 날 가시의 '효용'이 담긴 금지도서를 읽은 후 뽀족 가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마침내 가시를 자유자재로 세울 수 있게 되자 '울'을 떠나 푸른 숲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안전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비좁은 세상을 키우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신의 가능성과 마주칠 수 있도록 손을 놓아주어야 하는 것은 어른의 몫이기도 합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	창비	유아 813.8-921

어느 날 아침, 무당벌레가 거미줄에 걸렸습니다. 마침 커다란 꿈이 그 앞을 지나가고 무당벌레가 살려달라 애원하지만 꿈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며 지나쳐 버립니다. 점심 때에도 거미줄에 매달린 채 다시 꿈과 마주친 무당벌레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하소연해 보고, 저녁에는 자신의 필요성으로 꿈을 설득합니다.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그림책입니다. 본의 아니게 자연의 법칙을 선택할 권한을 가진 꿈은 귀찮은 모기를 없애줄 거미 손을 들어줄까요?, 봄날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줄 무당벌레 손을 들어줄까요?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한숨구멍	최은영	창비	유아 813.8-933

새 유치원 등원을 앞둔 아이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그려 낸 그림책입니다. 아이의 감정이 점차 고조되다가 해소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며 공감을 이끌어 내고 위로를 줍니다.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다스리는 법을 알아 가는 아이들에게 권할 만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깐요. 빨리 유치원과 학교가 문을 열어서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을 위한 “희망:일상으로의 초대”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백년아이	김지영	다림	아동 813.8-1887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919년에서 2019년까지의 한국 근현대사를 개인과 그의 가족의 인생으로 보여준 그림책입니다. 독립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100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역사의 희로애락을 가슴으로 느끼게 합니다. 개인의 하루하루가 모여 한 민족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한 나의 하루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백 년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백 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그레타 툰베리	발렌티나 카메리니	주니어김영사	아동 990.8-107-2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스웨덴의 소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던 아스퍼거 증후군 소녀가 세계의 중요한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후 변화를 막는 해결책 촉구’라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용기와 끈기 때문입니다.

‘큰일을 하는 데 너는 결코 작지 않아!’라고 말하는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지키며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도서관을 훔친 아이	알프레도 고메스 세르다	풀빛미디어	아동 873-51

카밀로와 안드레스는 콜롬비아의 메데인 시에 사는 열한 살 단짝 친구입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도둑질이 일상이 되어버린 빈민가의 아이들입니다. 어느 날 동네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카밀로는 도서관 공사장에서 집을 지을 벽돌을 훔치고, 술주정뱅이 아빠의 술값으로 도서관에서 책도 훔칩니다. 하지만 친절하신 사서 선생님 마르는 아버지에게 맞아 다친 카밀로에게 약도 발라주고, 카밀로가 훔쳐가는 책은 재미없다며 다른 책을 가슴에 넣어줍니다. 카밀로는 더 이상 책을 훔치지 않게 됩니다. 사회와 개인의 선한 의지가 어떻게 한 아이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결국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희망이 됩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한밤중 달빛식당	이분희	비룡소	아동 808.3-225-65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한밤중 달빛 식당'에서는 앞치마를 입은 두 마리의 여우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 식당은 '나쁜 기억'을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식당입니다. 이렇게 달빛 식당에 털어놓은 사연들은 주인의 기억에서 영영 사라져버립니다. 저마다 아픔과 상처를 가진 손님들이 '한밤중 달빛 식당'에서 나쁜 기억을 음식으로 팔아버리지만, 나쁜 기억이 사라진다고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모든 기억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숨어 있어 나쁜 기억이 사라지면 좋은 기억도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굳이 기억을 팔지 않아도, 향긋한 차 한 모금,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괜찮아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우리는 분명 연결된 거다	최명란	창비	아동 811.8-241

친구가 간지럼을 태워서 너무 웃다가 / 나도 친구에게 마구 간지럼을 태웠다 / 서로서로 간지럼을 태 왔다 / 그러자 둘 다
별로 안 간지러웠다 / 우리는 분명 연결된 거다 —「우리」

아이들의 밝고 천진한 모습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까지 감싸 안는 시인의 마음이 보여 지는 동시집입니다. 발랄한 상상력과 순수한 동심의 세계가 돋보여 어린이 독자들이 동시 읽기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찰입니다. 오래 들여다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들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떨어져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알렙이 알렙에게	최영희	해와나무	아동 813.8-885

마마돔은 핵폭발로 멸망한 지구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이, 테라라는 새로운 행성에서 인공지능 마마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유일한 인류 도시입니다. 이곳에 사는 발랄한 소녀 알렙은 늘 사냥조를 꿈꾸고, 드디어 원하던 사냥조에 뽑힙니다. 첫 사냥을 앞둔 날 밤, 단짝 친구 피트에게 마마와 돔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공지능 마마의 독재와 그에 저항하는 비밀결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렙이 비밀결사단을 따라 진짜 알렙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SF 소설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 이 세계를 주인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때로는 진실이 불편하지만, 합리적 의심은 거짓된 희망을 없애주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줍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일상은 늘 불안합니다.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희망:일상으로의 초대”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2미터 그리고 48시간	유은실	낮은산	813.7-1327

낮설지만 희귀 병은 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낫는 병도 아닌 그레이브스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열여덟 살 정음이의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고도 병이 재발하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기로 한 정음이는 치료 후 48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모두와 2미터를 벌려야 하는 그 시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주위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 막막하고 외로운 시간을 정음이는 어떻게 견뎌 나갈까요?

타인과 2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요즘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정음이를 보면서 아픈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몸은 멀어지지만 마음을 멀어지지 말자,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마음이 살짝 기운다	나태주	RHK	811.7-279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인, 나태주의 시집입니다. 꿀벌이 예쁜 꽃에서 꿀을 가져와 벌꿀을 만들 듯, 시인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살포시 가져와 시로 써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인입니다. 늘 그래왔듯 소소함 속에서도 진하게 느껴지는 여운과 다정한 감정이 녹아 있는 시인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살가운 위로와 어루만짐을 주고 일상의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시는 아름답습니다. 시인은 늘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시와 시인의 배려에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청기와 주유소 씨름 기담	정세랑	창비	813.7-734-13

주인공 '나'는 열 살이 되기 전부터 이미 60킬로그램을 넘긴 뚱뚱한 소년입니다. 부모님 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와 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씨름부에 들어가면서 인생 처음으로 '씨름 선수'라는 타이틀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지만, 프로선수로 성공하지 못한 나는 다시 좌절을 맛보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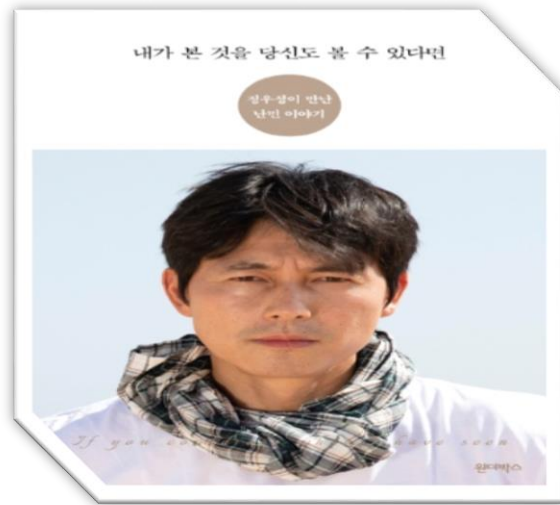
그런던 어느날 주유소의 점장이 자신의 양자가 되어 도깨비와 씨름을 해서 이겨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40년마다 찾아오는 도깨비와 씨름을 해서 이겨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장의 제안에 나는 도깨비와 일생일대의 씨름 대결을 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주인공의 삶에 느닷없이 나타난 도깨비와의 씨름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이야기 속에 담긴 기분 좋은 여운과 짜릿한 기쁨을 이 땅의 청년들도 함께 느끼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데미안	헤르만 헤세	문학동네	808-2-101

열 살 무렵의 어린 에밀 싱클레어는 이 세계가 허용된 밝은 세계와 금지된 어두운 세계로 나뉘어 있음을 어렵게 느낍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어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동안 그들이 배워온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며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백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의 청춘들에게 읽히고 있는 이 명작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제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 떠밀려 흘러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천천히 그 파도에서 내려와 어디 구석진 곳을 찾아가서, 또는 나의 멘토가 되어줄 누군가를 찾아서 자신의 저 깊은 곳의 내면을 들여다 봅시다. 그래서 숨겨진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희망이 됩니다. 지금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이 시기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딱 좋습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정우성	원더박스	818-968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정우성이 난민 보호 활동을 하며 만난 이들의 이야기와 난민 문제에 대한 생각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우리가 난민에 대해 가진 가장 큰 편견은 불안입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우리는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내전이나 폭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난민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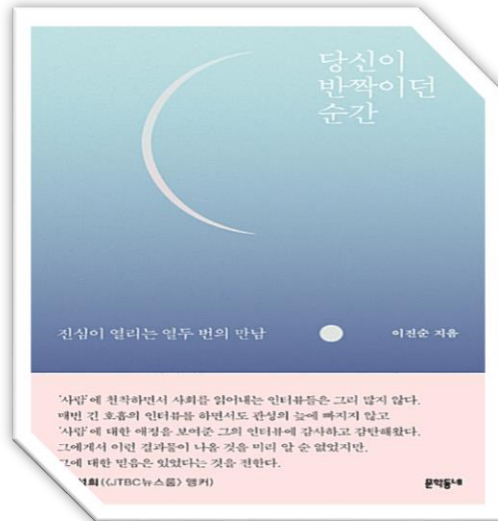
우리는 그들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는 것이 한낱 꿈일지도 모르지만, 꿈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는 믿습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최나미	사계절	808-4-118

갑작스럽게 엄마를 잃고 1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던 소년 석균이 석균이네 집에서 같이 살게 된 4층 할머니 조영분 여사의 도움으로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을 풀고, 세상에 나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석균이의 단순한 탐정놀이로 시작한 일 때문에 친구 연욱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를 바로잡으려던 엄마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틀린 답을 고를 수 있고, 틀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는 작가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최고의 해결은 타인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희망:일상으로의 초대”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833.6-34

30여 년째 비어 있는 폐가,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든 삼인조 줌도독이 뜻밖에도 과거로부터 도착한 고민 상담 편지에 답장을 하면서 겪게 되는 기묘한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잡화점에서 일어난 하룻밤 기적의 중심에 있는 나미야 할아버지는 지금 내가 가진 고민의 해답은 이미 자신이 알고 있지만, 자신의 고민에 귀 기울여주고 힘을 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려 애쓰지만, 정작 그 사람은 문제의 답보다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에는 사람이 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나미야 할아버지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	이진순	문학동네	304-39

어떤 매체에 6년에 걸쳐 122명을 인터뷰를 한 이가 있습니다. 성취나 업적보다 그들의 인간적 진면목을 여지없이 드러낸 그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122명 중에서 가장 반짝이던 12명의 인터뷰를 담은 책입니다. 이국종, 황석영 같은 저명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가장 빛난 순간을 보여 주신 ‘평범한 분’들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건 위대한 영웅들이 높이 치켜든 불멸의 횃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의 점멸등처럼 잠깐씩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짧고 단속적인 반짝임이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 코로나 최전선에서 반짝이고 있는 평범한 이들을 생각보고 그들의 용기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오전을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	이국환	산지니	814.7-510

이 책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게 하는 글들로 담겨 있습니다. 저자인 이국환 교수는 고통과 불안 속에 버티는 삶의 가치와 살아가는 의미를 독서와 글쓰기에서 찾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길보다 흔들리고 고민하며 걸어온 곳곳에 삶의 의미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흔들리고 고민하며 불안을 안은 채,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곧 다가올 오후도 미래가 된다고 다독여줍니다. 삶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치지 않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률	달	816.7-12

이병률 작가의 여행노트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대단하고 거창한 여행기가 아니라, 소소하지만 낯선 여행지에서 일상과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작성하고 책상에서 앉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쓴 글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길 위에 걸터 앉아서 혹은 어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그것도 아니라면 낡은 침대에 몸을 누이고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일 테지요. 그 정제되지 않은 듯 생동감 넘치는 글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때 그곳의 공기를 함께 호흡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의 따뜻한 향기입니다. 다시 여행을 떠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날을 기다리며 책으로나마 여행을 떠나보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사람의 자리	전치형	이음	331.5412-96

다가올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무턱대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막연하게 두려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세계를 밝히고 준비하는 일이 바로 과학과 기술입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미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도구 삼아 밝힐 자리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입니다. 전치형 교수는 과학이 "이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지 더 잘 결정하는 도구"가 되어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과학이 권력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과학이라는 이유로 내버려진 사람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도서관 청구기호
베어타운	프레드릭 배크만	다산책방	859.7-11

소설의 배경이 되는 베어타운은 일자리도, 미래도 없이 막다른 곳에 내몰린 소도시입니다. 온 마을이 아이스하키에 매달리는 이곳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청소년 아이스하키팀이 전국 대회 준결승에 진출하여 우승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의 꿈을 짊어진 아이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대의를 위해 이를 모른척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대의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소수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우리는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아이들의 용기와 사랑과 우정이 숙연하게 느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만합니다.